

<공동 기자회견문>

특수목적견 복제한다며 ‘식용’ 개농장과 검은 커넥션, 서울대는 진실을 밝혀라!

오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그간의 상황을 종합하고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대학교의 공공연한 오랜 비밀, 즉, ‘세계최초 개 복제’, ‘늑대 복제’, ‘개 복제 상용화’ 등 화려한 언론보도와 논문 발표의 배일 아래 실제로는 부도덕한 동물학대와 비과학적인 실험동물 남용·착취 그리고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수의대가 ‘식용’ 개농장 개들을 이용하여 시행한 개 복제 과정에 수반된 동물학대 행위는 과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는 물론 상식수준의 도덕적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관련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이들 의혹은 4개월간 실험실에서 동물 관리직으로 근무한 공익제보자의 증언으로 뒷받침 되었다.

‘식용’개 농장 개 반입 실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한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17년 11월 국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동에서 트럭에 실려 85-1동 수의대 실험실로 ‘납품’ 되는 어린 도사견들이 발견되었다. 이후 비글구조 네트워크에 의해 이 개들은 일반 ‘식용’ 개농장에서부터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학교 이병천 교수 연구실의 ‘식용’ 개농장 개들을 이용한 복제실험에 대한 조사를 해오던 카라는 서울대학교와 수의과대학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복제실험에 사용된 개들의 출처와 실험 이후 보호·처리 내역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무응답이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식용’ 개농장 개들이 추가 반입되기까지 했다. 이것은 동물보호 진영과 시민 사회에 대한 서울대의 고압적이며 시종일관 무시하는 부도덕한 태도의 표출이다.

[별첨1_11.15 카라가 서울대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의 내용]

서울대학교의 망가진 윤리와 도덕은 동물실험 윤리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실제로 전혀 작동 불능인데서도 드러난다. 서울대학교는 교수연구윤리현장과 연구윤리지침을 공표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등 총 5개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는 현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수의대 박재학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다. 더욱이 이번 의혹의 주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는 본부 소속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의 원장으로서 서울대학교 실험동물 시설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별첨2_국립 서울대학교의 연구 윤리 기관]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카라는 서울대학교에 어린 도사견을 ‘실험동물로 납품’ 하려 온 바로 그 차량을 충남의 ‘식용’ 개농장 ‘내부’에서 발견했다. 850

여 마리의 개들을 좁고 열악하며 비위생적 환경에서 키우는 이 개농장은 2016년 관리기 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바 있는 전형적인 개농장이었다. 개농장주(또는 가족)는 가까운 곳에서 보신탕을 제1메뉴로 판매하는 ‘막 000 집’이라는 보신탕집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용’ 개농장의 개들을 실험실로 반입한 행위는 그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복제 연구와 개농장의 검은 커넥션

[별첨3_공익제보자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 복제실험실의 동물학대 증언]

연구 윤리의 준수 없는 연구 성과는 있을 수 없어, 논문 전면 재검토 필요

그럼에도 국립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복지는커녕 실험동물로서 기초 관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게다가 보신탕 식당까지 운영하는 실로 최악의 ‘식용’ 개농장 개들을 데려다 이용후 다시 개농장으로 보내고 그렇게 얻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장기간 전혀 여과하지 못했고 묵인했다. 나아가 정당한 시정 요구에도 케이지만 교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이병천 개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간의 명성은 그냥 허울뿐이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형식적 장식일 뿐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한 대목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작동 불능 상황에 있는 동안 서울대에서 개 복제실험과 연구는 계속되었고 따라서 동물학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05년 스니피 복제시 연구자는 1천 95개의 수정란에서 2마리 개의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일후 죽은 한 마리를 제외하면 스니피 한 마리가 살아남아 0.09%의 성공률을 기록한 셈이다. 서울대 연구팀은 또한 멸종위기 늑대를 복원한다며 스닐피와 스닐피를 복제했고 여기에 251개의 수정란이 사용되었다.

서울대 연구팀이 주장한 복제 성공률이 100% 사실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달랑 2회의 복제 실험 연구에만 최소 1,346개의 수정란이 필요했다. 연구에 필요한 난자 그리고 복제견을 탄생시키기 위한 대리모로 수천마리의 개들이 말도 안 되는 싼 값에 모진 실험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참고, 실험동물 생산업체의 비글 1마리 1천만원(검역본부 이광희 연구관, 애니멀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금액), ‘식용’ 개농장 개 사용 대가 20만원).

이병천교수는 스니피와 늑대복제 논문에서 실험에 동원된 대리모 마릿수에 기준한 복제 성공률을 각각 1.6%와 16.7%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늑대 복제’ 성공률 부풀린 의혹... ‘스니피’ 통계 왜곡, 2007.4, 경향신문). 이와 관련 제보자가 듣고 목격한 내용 중 특히 포태한 대리모견을 출산 전 초음파 검사하여 여러 마리를 임신한 경우는 ‘실패’로 판정, 임신한 채로 개농장으로 돌려보내 탈락시켰다는 부분은 연구 성과 부풀리기와 더불어, 최신의 실험동물 관리가 노출된 결과 일 수 있다. 즉, 대리모로 반입된 ‘식용’ 개농

장 개가 이미 초기 임신상태에서 복제수정란이 이식되었거나 잘못된 복제 실험의 결과를 중간에 탈락 시킨 경우 등 의혹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야 어쨌든 대리모견은 복제 실험결과 복제견을 임신한 상태로 다시 개농장으로 보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연구가 아니라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신중 대리모 견 탈락 행위 사실여부 및 사유와 함께 위의 두 연구가 시행될 당시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왜곡된 실험을 통해 그간 개 복제 성공률과 효율이 제시되어 온 것이라면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사업' 과 '식용' 개농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개 복제 연구의 관계

오랜 세월동안 서울대 개복제 연구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지하거나 용인해 온 국가와 사회적인 집단적 무감각과 냉담함 무지도 큰 문제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은 2012년 서울대로부터 개 복제 기술을 전수 받고 2012년부터 '정부 3.0 특수목적견 복제생산과 보급사업'을 시작해 2017년 3월 마약탐지견 네오의 복제견을 관세청에 인계함으로써 총 50마리를 '달성'했다. 그들은 복제견이 일반견들보다 최종 합격을 면에서 우수하여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하며 복제견 생산의 장점으로 '복제견 생산을 위한 난자 제공견과 대리모견 확보가 용이'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별첨4_농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의 특수목적견 복제 홍보자료 중 일부]

만약 정부도 '식용' 개농장의 개들을 헐값에 착취하며 비교학적 비윤리적 연구를 해 온 것이라면 '간' '식용' 개농장의 동물학대를 제어해 달라는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온 정부가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할 때는 앞장선 것인 만큼 참으로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오직 우리나라만 개 학대에 기반한 복제 실험으로 특수목적견을 '생산'

우리나라에서 활약 중인 특수목적견들은 반려동물 복지수준이 높고 개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긍정강화 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반려동물 선진국으로부터 고가에 수입된다. 한편 68건의 마약류를 탐지해 낸 전설적 마약탐지견으로서 2017년 3월 복제된 네오는 2001년 관세청 자체 번식 프로그램에 따라 자연적으로 태어나 훈련받아 현업에 투입된 개다. 해외의 우수한 치료보조견 암탐지견 인명구조견 탐지견들이 복제를 통해 돌연히 '생산'되는 경우는 없다.

최근 카리에는 한국의 식용개 농장에서 구출된 개들을 영국으로 데려가 치료보조견 또는 암탐지견으로 훈련하여 소위 '식용' 개에 대한 편견을 타파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온 바 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영국 전문가는 "한국 개농장은 극단적인 동물학대현장이며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다.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어리며 식탐이 강한 개들이라면 긍정강화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사역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렇게 훈련받은 개들이 영국에서는 가정에 편견되어 인명을 지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친구

가 된다.

특수목적견 복제 생산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과에도 한계

가족으로 함께 살던 개가 죽었을 때 이 개의 복제견으로 상실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으며, 마약탐지견, 수색견 등 뛰어난 기능을 수행하는 개들을 복제하여 사역견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간의 질병 모델로서 복제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복제견을 '생산'해 내는 연구자들이 주로 하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인간과 개의 유대는 사람과 인간의 유전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개성을 가진 개체, 또는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 사랑하는 개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 개의 여러 특질들을 다른 개들, 보호소에서 입양하거나 길에 떠돌거나 타인의 집에 묶여있는 다른 개들에게서 발견한다. 또한 사역견의 기능은 핸들러가 얼마나 동물과 관계를 잘 맺고 긍정적 접촉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일부 유전적 특질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선택 육종만으로도 얼마든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가진 개들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된 개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네오' 처럼 자체 훈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질병 모델로 복제 개들을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동물실험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는 마당에 반려동물이며 인간과 뛰어난 교감의 능력을 가진 개를 막대한 고통을 부과하면서까지 질병 모델 실험동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개 복제 기술은 실험자들이 개를 복제하기 위한 대리모견, 난자를 쉽게 얻은 결과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례와 같은 소위 '식용 개농장' 개들의 실험동물로의 반입과 남용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런 치욕스러운 평가를 계속 받게 될 것이다.

특수 목적견 복제의 장기적 전망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연과학자의 장기적 평가는 어떨까. 이화여대 장이권 교수는 "복제를 한다는 것은 무성생식을 통해 자손을 생성한다는 말과 같다. 이에 비해 포유류를 포함하고 있는 척추동물은 무려 99% 이상이 유성생식을 하고, 무성생식을 하는 종은 미미하다. 자연은 의도적으로 무성생식 보다는 유성생식을 선호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 같은 유전자 조합이 계속 이어지므로 질병이 이를 쉽게 해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제를 통한 특수목적견 사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주었다. 또한 그는 "특수목적견의 복제견이 비복제견보다 더 우수하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같은 수의과대학의 우희중 교수는 복제견이 가장 이상적으로 복제되었다 해도 체세포 제공견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연 교배를 통해서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 부모보다 더 뛰어난 자질을 얻을 수 있기에 훌륭한 목적견 확보를 위한 복제연구는 한계를 지닌다고 과거 언급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식용'개농장 개 반입과 동물학대 연구에 대한 카리의 요구

오늘 공익제보자와 함께 카라는 서울대학교의 식용개 남용 특수목적권 복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카라는 대학이나 국가 기관의 특수목적권 복제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규모 ‘식용’ 개농장 운영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연구이며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본다. 이를 가능케 하며 계기를 제공하고 10여년째 거듭되어 온 서울대학교 개 복제 ‘상용화 연구’ 자체의 도덕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연구라는 명목으로 심지어 국가 프로젝트로서 지속되어 온 특수목적권 복제 ‘사업’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이병천 연구실 개복제 연구의 적정성과 윤리성을 서울대학교의 명예회복을 위해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비윤리적이며 비과학적인 실험과 실험동물 사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확인될 경우 관련 논문들이 모두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새로이 해야 하고,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현재의 위원회 및 책임자를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병천 교수는 즉각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관악구청에서 진행하는 형광 개 견학 프로그램도 중지되어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역시 시민사회의 동물복지 및 연구윤리를 선도해가야 할 집단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서울대학교 내 ‘식용’ 개 연구 동 즉각 폐쇄와 실험에 동원된 개들에 대한 윤리적 조치와 책임을 요구한다. 이 제라도 ‘국립’ 서울대학교가 스스로의 지성과 자정 능력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서울대학교 수의대의 동물학대 중지를 소망하는 국내 국외의 동물보호단체와 연대할 것임은 물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지금 해외에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부적절한 ‘식용’ 개 농장 개 학대와 특수견 복제사업의 실체를 알릴 것이다.

- 계속되고 있는 ‘식용’ 개농장 동물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 무등록기관 실험동물 공급임을 알면서 연구 승인한 서울대실험동물윤리위원회는 전원 사퇴하라!
- 서울대학교는 연구 책임자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
- 서울대학교는 ‘식용’ 개농장 동물실험 내역을 낱알이 공개하라!
-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은 비윤리적 실체 드러난 특수목적권 복제 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

2017년 12월 18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호루라기 재단

※별첨 목록

- [별첨1_11_15 카라가 서울대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의 내용]
- [별첨2_국립 서울대학교의 연구 윤리 기관]
- [별첨3_공익제보자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 복제실험실의 동물학대 증언]
- [별첨4_농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의 특수목적권 복제 홍보자료 중 일부]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과 우희종 수의과대 학장님, 그리고 이병천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소위 ‘개농장’의 개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동물단체 “서울대 수의대, 동물실험에 식용견 사용 의혹”, 2017.11.09, 한겨레). ‘비구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서울대 수의대 85-1동 인근에서 이른바 ‘식용견’으로 보이는 개들이 실험동물로 공급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영재 대표가 비구협 카페에 올린 영상에는 철장에 갇힌 어린 도사견들이 트럭에 실려 있고, “실험동물을 공급하러 왔느냐”는 질문에 운전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자신이 개농장주들의 연합회인 ‘육견협회’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구협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서울대측이 관계 법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비윤리적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해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험동물보호법은 개를 포함한 9종을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지정,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서울대학교가 발간한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교는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고 자평하고 있는 바, 개농장을 통한 실험견의 구입은 이같은 ‘윤리적 노력’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개농장은 개들의 복지를 철저히 무시한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인 대규모 집단 사육으로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금지 입법을 위해 다수의 동물단체들이 노력 중이고, 잔인한 개도살이 연일 사회 이슈로 대두되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만약 서울대가 소위 ‘식용’ 개농장을 통해 개들을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농장 개들의 탄생과 사육 그리고 실험실로 공급되기까지 개입된 동물학대에 동의하고 다만 생명을 ‘성과 생산’을 위한 ‘도구’로 여긴 것에 다름아닙니다. 비록 실험견으로 희생된다 해도 이들 존엄한 생명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자로서 동물실험윤리는 최후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과학자로서의 의무라 할 터인데,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다루며 연구할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독수독과(毒樹毒果),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사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윤리에 기반한 기술, 철학이 부재한 손끝의 능란함이 만든 학문적 성과는 독과에 불과하며 무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잘못된 관행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이미 카라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농장을 통해 실험동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조사 중에 있었음을 이 기회에 밝힙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공개 질의 드리오니 그간 홍보해 온 연구 성과가 비윤리적 생명 남용의 결과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여 ‘국립 서울대학교’가 허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사 항 =

(1)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적절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농장 개들이 사용된 실험의 ①연구 목적과 ②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득한 것인지 여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대 중후반기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실의 모습은 전형적인 소위 ‘식용 개농장’과 다름이 없습니다(별첨 1, 사진 참조). 이와 관련 현재의 실험견(대리모견 포함)들의 사육 환경과 보호 관리 사양을 ① 상세 사육 시설 ② 급식 ③ 운동 ④ 수용 규모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험이 종료된 대형견들의 ① 안락사 방법 및 사용 약제 내역 ② 개체별 사체 처리 내역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5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별첨2_국립 서울대학교의 연구 윤리 기관]



연구윤리

3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현장
 서울대학교는 급변하는 교육과 연구 환경 속에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수들이 도덕과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대학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자, 자기성찰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수윤리현장을 만들어 선포하였다. (2006. 3. 15)

4 연구윤리위원회 <http://snuethics.snu.ac.kr>

- 연구진실성위원회(CR/ORI)**
연구부정행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학교 차원에서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설문연구를 포함한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연구 개시 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ACUC)**
교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교내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생물안전위원회(BC)**
교내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 감염성 물질 등)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구이다.

5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서울대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지침을 별도로 지정하였다.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 데이터 관리, 저작권, 표절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 실험실의 동물학대 정황

[별첨3-공익제보자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복제실험실의 동물학대 증언]

1) '식용' 개농장 개들의 이용 착취 커넥션

- 난자채취용 및 대리모들을 모두 '식용' 개농장에서 데려왔다.
- 실험실로 온 개농장 개들은 모두 뜬 장 시설에 있었다.
- 난자채취용 개들은 물론 대리모로 사용하는 개들도 뜬 장 시설에 있었다.
- 개농장에서 온 모든 개들은 실험이 끝나면 다시 개농장으로 보내졌다. 난자채취용 개들은 물론 대리모 개들까지 전부 사용이 끝나면 개농장으로 돌아갔다.
- 임신 시켰는데 임신이 안된 개들도 있었고, 너무 여러 마리를 임신하여 실험에 실패한 개들도 있었다. 모두 개농장으로 돌아갔다.
- 이병천 교수는 개농장주에게 1살령 미만의 어린 개들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 난자채취에 성공한 개들에 대해서만 마리당 15만원~20만원을 개농장주에게 줬다. 금액이 너무 낮다고 개농장주가 불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 개농장주가 말하길 이병천 교수가 난자채취를 위해 개들을 500마리까지 늘려달라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했다.
- 개농장주가 올해 개고기 파는 식당을 자기 아들한테 열어줬다고 말했다.
- 본 실험실의 연구가 농진청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특수목적견 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걸 여기저기서 여러번 들었다.

2) 실험용 '식용' 개 반입이전 및 반입 후 관리 상황과 관리 일반

- 2017년 5월경 실험을 마친 쥐(마우스)들을 개농장주가 한꺼번에 갖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 (개농장에서 서울대 실험실로) 4개월간 약 100마리의 개들이 오고 갔다.
- 1주일에 2번씩 총 3~4마리가 반입됐다. (때로는 1주일에 총 8~9마리가 올 때도 있었다.)
- 개들을 반입하기 전 개농장에서 먼저 개들의 혈액을 고속터미널로 보내면 수령해 와서 호르몬 검사를 했다.
- 호르몬 수치가 높은 개들이 실험실로 반입됐다.
- 고속터미널로 1주일에 1~2번씩 혈액이 왔다.
- 개농장주가 직접 혈액채취를 했다. 필요한 경우 개농장주가 혈액을 다시 보내주기도 했다.
- 실험실에 반입된 개들은 매일 혈액채취를 했다. 나(제보자)도 배워서 혈액채취를 해야 했다. 개들이 두려워하고 나도 서툴러서 처음에는 한두시간이나 소요되기도 했다.
- 난자채취시에는 개들에게 마취를 했다. 초음파 볼 때는 마취를 하지 않았다.
- 난자채취는 배를 갈라서 했다.
- 난자채취후 봉합부위가 터지는 개들이 있었다.
- 마취에서 깨어날 때 주변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었다.
- 난자채취 당한 개들과 별도로 '식용' 개 농장 개들 일부는 대리모로 사용됐다.
- 실험실서 개가 다른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주1회 정도 발생했다.
- 실험실서 (뜬 장) 바닥 철망에 발이 끼어 다치는 경우가 주1회 꼴로 발생했다.

-픈 장이 너무 넓어 개들이 탈출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탈출한 개들은 땅을 난생 처음 디더보는 듯 불편해 보였고 멀리 가지 못했다.

-개들이 다쳤을 경우 실험실에서 기본치료는 했다. 하지만 실험실은 (치료가 더 필요함에도) 개들이 오려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 눈치였다.

-약 12마리의 비글 실험견들이 서울대 동물병원 내 산과에 있었다. 내(제보자)가 산책시키기 전까지는 그 개들을 산책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나(제보자)는 하루에 3마리씩 그 개들을 산책시켰다.

-실험실로 온 개농장 개들은 산책시키지 않았다.

3) 실험실로 반입된 '식용' 개들에 대한 차별과 개농장 지원

-실험실로 온 개농장 개들에게는 (저급사료인) 캐니스마니어를 급여했다.

-1달에 캐니스마니아 사료 40포 정도를 받아와 20포는 실험실서 소진하고, 나머지 20포는 개농장에서 가져갔다.

-반면 실험실 복제견들에게는 로얄캐닌 사료를 먹였다.

-실험실 비글견들에게는 내츨발란스와 캐니스 중간급 사료를 급여했다.

-실험실로 온 개농장 개들에게는 1일 기준 사료는 1회, 물은 2~3회 급여했다.

-실험실 임신견들에게는 사료를 더 자주 급여했다.

2. 허울뿐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나(제보자)는 지난 5월 서울대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실험실로 온 개농장 개들의 사육시설이 열악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개들의 신체 규격에 맞지 않는 케이지 사용, 좋지 않은 위생상태 등을 거론하고 개들이 인다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동물실험윤리위는 몇차례 메일을 보내 다음 사항을 나(제보자)에게 전달했다.

*서울대동물실험윤리위의 답변 메일에 있던 내용

1) 9.20에 답신 보낸 내용

-6.14 동물실험윤리위 2차 정기회의에서 안전 채택하여 논의

-6.21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2명과 현장점검

-이후 동물실험윤리위 위원장인 박재학 교수와 간사가 해당시설 연구책임자인 이병천 교수를 만나 시정권고 사항을 전달

-시정권고 사항은 공문으로 수의과대학에도 보내 조치결과 공문을 회신 받음: 수의대 내에서도 해당시설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함

-9월중 새로운 시설로 이사한 후 동물실험윤리위 위원들이 11월에 현장점검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결과를 송부하겠다고 함

>>윤리위측이 확인한 내용

-실험견 사육장은 임시시설로 운영

-9월중 동물복제등 신축공사가 완료되는대로 동물복제등 4층으로 동물들을 곧바로 이동시킨다고 함

-케이지 과밀화 문제는 중간격벽이 탈락 가능한 형태의 케이지를 구입하여 동물 1마리당 케이지 사용면적이 늘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새 시설에는 자동급이, 자동분변배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위생문제도 해결된다고 함

-족저염을 유발하는 원형스테인리스봉 바닥의 케이지를 사각스테인리스 봉 바닥의 케이지로 변경하였음

2) 12.5에 답신 보낸 내용

-식용 개 사건으로 궁금하실 텐데 메일 답변 주겠다고 함

[별첨4_농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의 특수목적건 복제 홍보자료 중 일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특수목적건 생산과 관련된 다수의 홍보 자료들을 연도별로 볼 수 있음.

<http://www.nias.go.kr/promote/result/index2016.do>

99% 오전 8:24

2. 특수견 복제의 장점
○ 복제된 마약탐지견의 훈련 합격률 : 100% (7마리 → 7마리 합격)
* 일반 훈련견의 합격률은 약 30% 정도
○ 마약탐지견 마리당 생산비 : (일반견) 130 → (복제견) 46백만 원
* 약 65%의 비용절감 효과
○ 복제견 생산을 위한 난자 제공견과 대리모견 확보가 용이
○ 복제견 생산과 기초연구에 대한 세계최고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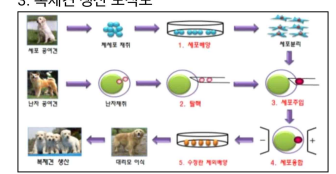


02

정부 우수 특수목적견의 복제생산 및 보급

배경
국외의 우수 특수목적견 생산·보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일원으로서 설립된 연구 기관 내에 특수 목적견 중앙연구개발부, 우수산사육부, 관선생, 양장실, 소생실제조사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무연구실 제2실 (2011. 10.28)에서 정부 특수목적견 복제생산 연구를 추진하였다.

46 3011 400000 400000



참고 용어 설명

0 0

